



청소년 꿈 찾기 프로젝트 'Spring'



매일 나오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행복한 희망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는 이제 ‘Spring’이라는 이름으로 그 첫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범죄와 자살, 폭력, 우울감, 상실감 등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우리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만 성적, 적성, 교우관계, 삶의 목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장래희망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에 상처만 끌어안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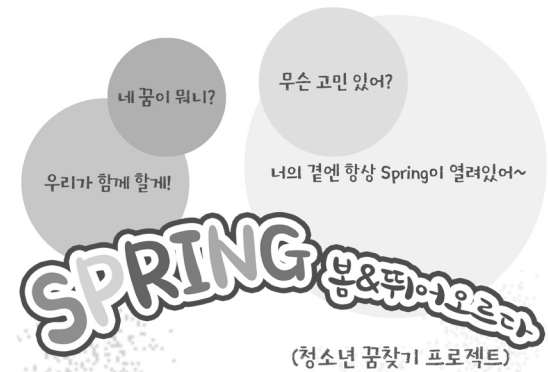
교회교육 전문가들도 교회를 점점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 신앙과 함께 하는 인생설계를 위한 주중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지관은 사춘기 초입의 청소년들의 고민과 욕구를 인지하고, 또래 관계 형성 및 꿈 찾기를 통한 행복한 사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환경의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소통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Spr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꿈찾기, 사춘기 고민해결, 자살예방, 심리, 정서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 등 청소년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한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이 준비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삶이 교회학교를 통한 신앙교육과 주중 프로그램인 ‘Spring’을 통하여 온전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도록 돕고 함께 동행하는 프로젝트를 쫓아 피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Spring’은 용수철처럼 어느 방향을 향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하여 힘차게 뛰어오르며 고민과 방황의 겨울을 벗어나 회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의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12월(30회기 이상, 매월 1~3주 수요일, 4주 토요일 진행)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연령

신청 :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 (주안빌딩 5층, 032-523-1998)

시 간	수요일(1~3주)	시 간	토요일(4주)
16:00	복지관 꿈터 교실	10:00	주별 행사 공연관람, 케이크만들기, 목공예, 영화감상, 야구장, 공연관람, 기후체험관방문
16:00 - 16:30	레크레이션/보드게임	10:00 - 10:30	
16:30 - 17:30	동아리활동 (난타) 심리놀이	10:30 - 12:00	
17:30 - 18:00	저녁식사	12:00 - 13:00	

‘Spring’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 후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정서안정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비스하려는 예정입니다.

‘Spring’프로그램은 단지 청소년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청소년들의 상담을 실시하며 이야기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기르며 취약환경의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미래를 향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복지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Spring’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불어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복지관이나 복지서비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안빌딩5층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032-513-1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애중합사회복지관은 언제나 지역과 교회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예 집사(21교구)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사랑부에 갔었는데, 벌써 9년째 사랑 2부 친구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대부분 누군가 도와주어야 예배에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손뼉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Q 사랑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인지요? 또한 선생님이 사랑부를 섬기게 된 계기와 사랑부 교사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랑부는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예배의 첫 시작은 대어섯명이었지만 점차 모이는 숫자가 많아져 지금은 약 200여명 정도이고 사랑1부(유,초등부), 사랑2부(중,고등부), 사랑3부(청,장년부)로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시절, 수업 중에 교실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내면서 경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저 겁이 나서 아주 멀리 도망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30여년 잊고 살았는데 보잘 것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깊이 깨달은 어느 날, 사랑부 교사모임을 보게 되었고 문득 그 친구가 떠올라 사랑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부에는 중학교 때 보았던 제 친구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계속 부정적으로 반대로만 얘기하는 친구에서부터 자기 손등을 계속 물어서 손등이 거북손 같은 친구, 입이 잘 안 다물어져서 한없이 침이 흐르는 친구, 이유 모르게 머리를 바닥에 수없이 부딪히며 울다가 멈추는 친구, 스피커소리나 박수소리에 예민해서 귀를 막거나 우는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사는 이러한 친구들이 예배에 특히, 말씀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지만 땀이 많아 늘 갈증이 나는 친구는 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친구는 예배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거나, 미리 커다란 수건을 준비해 연신 입을 닦아주기도 하고, 입에 침을 모아두는 친구에게는 휴지와 껌을 준비해주고, 예민한 친구에게는 예배순서를 미리 알려주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들



의 특성에 맞춰 돕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돌발행동이나 변수가 있어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 빔의 화면을 가리고 정중정중 뛰거나 갑자기 빛의 속도로 사라져 교사들이 흩어져서 찾아다니는 등 그날 그날마다 컨디션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은 예배자로서 본이 되어야함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랑부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목사님이 묻는 말에 서로 앞다투어 대답도 잘하고 한 달에 한 번 암송상도 있으며 엉뚱한 대답으로 한바탕 웃을 기회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사랑부 학생을 위해 모기업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희 부서는 1년에 2회 장애친구들의 사회적응훈련점 그들의 부모님께 잠깐의 쉬를 드리기 위해 팀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쁘게도 이번에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싸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에는 차를 소유한 교사가 한 명 뿐이라 13명 저희팀이 이동할 생각을 하니 걱정스러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친구들이 지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던 중 불현듯 기프트카셰어링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광고의 이미지로 볼때 '우리도 시도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에 부리나케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사연 모집 중이었고 글을 적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청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첨이 되었는데 신청한 차량을 운전할 운전자가 없다고 하니 운전자도 보내주고 기프트카드도 찬조해 준다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다시 맘이 줄여왔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 당일에 화창하진 않았지만 비가 개어서 기프트카에서 제공한 슬라터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나 주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사랑부에 올 때만 해도 중장년층의 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사랑부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 선생님들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커피나 음료를 사다가 주기도 하고 잘 따릅니다. 사랑부에는 젊은 패기와 달음박질 잘하는 청년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진자리 마른자리 보살피는 부모의 손길같은 장년교사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디가는 우리 사랑부친구들에게 꼭 1:1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주안인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juanqt@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